

# 정부, 日 제소 반박 '독도 구상서' 전달

## 이르면 주초에... APEC회의 한일 외교갈등 분기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초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한 일본의 외교문서를 반박하는 구상서를 보낸다.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 따라 악화일로로 치달는 한일 외교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구상서 작성 및 발송 자체는 시간이 걸릴 일은 아니다"면서 "발송 시기는 일본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될 것으로, 이르면 이번 주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상서에서 "우리 땅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면서 일본의 ICJ 제안을 일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정부의 확고한 영토수호 의지도 압축적으로 표현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서울의 외교체널을 통해 일본측에 구상서를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및 일왕에 대한 사과요구 발언에 대해 반발하면서 지난 21일 ICJ 제소 제안을 담은 구상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우리 정부의 구상서 발송으로 한일 외교전이 일단 일단락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과도한 대응은 자제하고 있는데다 일본도 총리 기자회견에서 별다른 추가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총리 서한을 반

송받고 총리가 추가적 대응 조치를 내놓지 않은 점을 볼 때 일본도 내부적으로 더 가서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노다 총리의 기자회견을 정점으로 한고비는 지나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 수준이 현재의 고강도에서 국제적 홍보 여론전 강화 등 저강도

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유로 다음 달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한일 외교갈등의 분기점으로 외교계는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외교 갈등의 봉합을 원하면 10월 선거 전 노다 총리의 마지막 다자회담 무대인 APEC에서 양자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 분석에서다. /연합뉴스



**독도사랑 농구대회** 대한농구협회 주최로 25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서 열린 제2회 독도사랑 농구대회에서 선수와 심판진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국도 일본에 강경 대처해야"

## 홍콩 사우스차이나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이명박 대통령의 대응 태도를 보고 중국에서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보다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분석했다. SCMP는 25일 자에서 한·중·일의 영토 분쟁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한·일 관계 경색으로 중국이 일본과 영토 분쟁 중인 다오위다오(釣魚島·중국명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처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분석했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이 대통령의 독

도 방면에 이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항의 서한을 한국 정부가 반송한 것을 보고 중국도 일본에 강경하게 나가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한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사용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다. 공산당 지도자들은 실망스럽다"라는 글을 올렸고 또 다른 사용자는 "중국이 이번 기회에 일본에 강한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학원의 일본 전문가인 저우용생(周永生)은 "대중의 반일 감정이 고조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노다 정부가 한

국 외에도 러시아와도 최근 영토 분쟁을 겪고 있으며 지저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중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 분석도 있다.

저우용생은 일본이 현재 직면한 외교적 대처상황이 다오위다오 분쟁에서 중국에 유연성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긍정적인 양자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에 강경한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외무성에 노다 총리 서한을 반송하러 했으나 일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다오위다오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은 보다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 노다 日 총리 서한 정부, 반송 확인

정부는 등기우편으로 반송 조치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서한을 일본 정부가 되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이를 전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한 노다 총리 서한이 어제 오전 일본 외무성에 도착한 사실을 컴퓨터로 (배달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외무성에 노다 총리 서한을 반송하러 했으나 일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다오위다오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은 보다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 애플 완승... 향후 전망은

# 삼성 타격속 항소심서 대반격

## 신제품 판매 조치만 美 시장 입지 축소

미국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침해사건 1심 재판의 배심원 평결이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 사건 배심원단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양 시간 특허소송 1심 판결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대부분이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상품의 외관 혹은 느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장치) 등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10억 4934만3540달러(약1조191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아직 재판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우선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후에도 항소심 등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평결 후 판결 남아=이번에는 배심원단이 평의를 거쳐 평결을 내렸을 뿐, 실제 판결은 이를 검토하고 나서 재판장이 직접 내린다. 이런 경우 재판장은 대개 판결과 똑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리지만, 드물게 이를 뒤집거나 변경하기도 한다.

다만, 재판장이 배심원들의 판단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분명히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흔치는 않다. 명백한 법적·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평결 내용이 판결에 대부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가다.

고의적 침해'로 징벌적 배상 가능성=평결 내용이 판결로 그대로 이어질 경우, 판결 배상액이 평결 당시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중 상당수를 "고의로(willfully)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이 판단하고 이를 항목별로 평결에 적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평결 후 소송행위(post-verdict motion)를 통해 애플이 최대 3배의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항소심서는 법리·절차 다름 예상=일반적 예상대로 1심 판결이 평결 내용을 따를 경우 삼성전자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으로 갈 경우 재판 결과를 짐치는 쉽지 않다. 미국 사법 제도상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가져온 결과와 1심 결과를 놓고 절차와 법리를 따지는 법원일 뿐 새로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심은 아니다. '팩트'를 뒤집기는 쉽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삼성 장기적 타격 우려=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또 다른 우려는 갤럭시S3 등 신제품에 대한 추가 판매금지 조치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다. 특히, 갤럭시S3도 예전 삼성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모방의 산물이라고 애플이 주장해 온 점과 이번 평결의 근거와 내용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 전체에서 삼성의 입지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 "삼성 특허 침해" 평결

## 구글 이메일 결정적 역할

삼성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판단한 미국 배심원단의 평결에 구글이 삼성에 보낸 이메일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인 호건(67) 배심원단 대표는 25일(현지시간) 삼성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지난 2010년 구글과 삼성 경영진 간의 내부 이메일 내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2010년 2월 구글은 삼성에게 이메일을 보내 삼성 제품에 애플 제품을 모방하게 보이도록 디바이스를 수정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를 내렸다"고 말하고, 구글의 메모를 보고 고의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리기까지 세심한 과정을 거쳤으며 자신의 경우 문제가 된 특허를 살펴 보면서 "만약 이것이 내 특허고 내가 소송을 당했다면 스스로 이를 변호할 수 있을까"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미국 배심원단은 24일 애플이 주장한 특허를 대부분 인정하고 삼성이 애플에 10억5천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는 이같은 평결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삼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은 다음달 애플의 삼성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 심리를 여는 데 판결 과정에서 배상액 규모가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애플세 대비해야"

##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법원의 평결 이후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들이 애플에 특허 사용료를 물어야 하는 이른바 '애플세(稅)' 영향 때문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온라인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혁신에 있어 다양한 애플의 특허를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가 더 비싸질 수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조사기관 IDC의 애널리스트인 알 힐와는 "큰 애플세가 있을 수 있다. 전화기가 더 비싸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결도 애플이 법원에서 보호받길 원했던 다양한 기술에 대해 경쟁 제조업체들이 특허에 따른 라이선스료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b>월곡동(블링)</b> 대1787㎡ 감정가 22억 최저가 12억4천	<b>쌍암동(대지)</b> 대1787㎡ 감정가 17억5천 최저가 9억9천	<b>치평동(모텔)</b> 대24㎡, 2715㎡ 감정가 16억 최저가 8억2천	<b>화순오곡(근린시설)</b> 대83234㎡, 24280㎡ 감정가 43억3천 최저가 12억1천	<b>화정동(예식장)</b> 대1094㎡, 24489㎡ 감정가 41억5천 최저가 21억2천	<b>장성향행(공원)</b> 대3398㎡, 801㎡ 감정가 15억 최저가 8억7천	<b>도산동(교회)</b> 대772㎡, 2378㎡ 감정가 9억5천 최저가 4억2천
--	---	--	--	---	--	--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산(비오공정)</li> <li>대지 3025평 &gt; 건물 597평</li> <li>감정가 9억9천</li> <li>매매가 38억 (협의후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주 봉동(대형공장)</li> <li>대지 7125평 &gt; 건물 5465평</li> <li>감정가 135억</li> <li>매매가 70억 (협의후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동(목욕탕)</li> <li>대지 91평 &gt; 건물 303평</li> <li>감정가 10억</li> <li>매매가 4억7천(협의후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문동(하이소포텍)</li> <li>대지 4076평 &gt; 건물 12943평</li> <li>감정가 515억7천</li> <li>매매가 160억(사설비별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산동(주유소)</li> <li>대지 230평 &gt; 건물 105평</li> <li>감정가 15억5천</li> <li>매매가 11억 (협의후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산 (공장)</li> <li>대지 1999평 &gt; 건물 687평</li> <li>감정가 25억</li> <li>매매가 17억(협의후결정)</li> </ul>

근린시설/원룸 정현호이사 010-5879-0005    숙식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중원이사 010-8227-7759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 매매**

▶ 쌍촌동 운천저수지 건너편 명지아파트 옆

**대지 427평(매매가 7억6천860만원)**

**평당 180만원**

아파트/빌라 박미림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    근린주택 손해연이사 010-9611-2817

당사 보유 부동산 매각  
 · 광주대일(지하)호프 분식60명, 원동형빌라(산수동, 백운동)5칸, 계림동 E마트1층1칸  
 대출 + 보증금공제후 실인수가 1천만원 (H.010-6654-6888)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할>

- 일반상가 건물: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족주택(원룸, 투룸, 스티튜)

<토지구할>

- 지역: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200평~300평, 용도지역: 자연녹지, 용도: 주차장
- 최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저렴한가능지역 광주 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대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점, 농지전용 원룸, 매대가 협의 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포장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의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장성군 향평면, 장성C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08949.co.kr

**가 은 공인중개사**

**급 구**

☆전남지역☆

**업 전 양어장 (폐업전 포함)**

**잡종지**

**즉시 매입가능!**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으로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원소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현 011-602-2532  
 (광주은행 신봉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첨 단 신창동 신가동**

**상가 건물**

**파실분환영!**  
 (8억 ~ 12억계약가능)  
**《매수자 대가중!》**

**광주원룸매매**

**원룸 파실분 매환영!**  
 (매수자 다수 대가중)

**《사실분도 문의환영》**  
 (수익률 높은 원룸 많이 있습니다)

**광주 원룸 토지매매**

**파실분 → 빠른 계약가능!**

**사실분 → 원하는 땅 구해드립니다!**

**우림공인중개사**  
 일곡지구 중심상가 밀집지역내 위치  
**010-3622-6076**  
 062)576-8484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가(매매)**

- 봉선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당 1,200만원(38억)
- 봉선동 20억 월임대료 1,200만원
- 봉선동 1층복합 상가 121평 평당 1,730만원(21억)
- 보종동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 첨단 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 707만원(14억5천만)
- 임대보증금 1억 월임대료 1,000만원
- 두암동 7층건물 164평 건물면적 600평(31억)
- 임대보증금 95억 월임 500만원

**토 지(매매)**

- 상무지구 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유휴가능,석당영업중)
- 상무지구 833㎡(252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변화가 시가리코너)
- 상무지구 1,980㎡(600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유휴가능)
- 상무지구 3,400㎡(약1,000평) 평당 750만원(시정앞) (회사사무소,오피스빌딩 적합)
- 동림지구 준주거지 운암-하남 간대로변 4,470㎡(약1,352평) - 평당 330만 (예식장 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립니다.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우편이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현 011-609-5221  
 (상무지구 이마트 건너편 1층)